

# 배움의 '디딤돌'

## 평생학습 박람회 교육부장관상 수상



군산시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서 올해의 대한민국 평생학습 분야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돼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평생학습 최우수상은 대한민국 어디서든지 생활 속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있는 사회 각계 각층의 평생학습문화 우수사례를 발굴해 홍보함으로써 평생학습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성공적인 모델을 공유해 평생학습의 성과를 도모함으로써 추진하고 있다.

시가 이번에 수상한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는 민선 7기 군산시장의 공약사업으로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2018년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로 2018년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시작했다.

시민중심의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를 통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동네 상가나 공공시설에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평생학습을 통해 골목공동체가 회복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며, 일자리 제공과 함께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군산시의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는 평생학습의 디딤돌이자 언제 어디서나 배움이 가능한 평생학습 기반의 초석을 다지는 사업이다.



### ▲동네문화카페란?

시민 5인 이상이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배움을 무료로 제공 받고, 강사와 매니저는 일지라가 창출되며, 소상공인은 소득이 증대되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이다.



2018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네문화카페는 군산시가 2019년 10월 상표 등록된 군산시 평생교육 브랜드로, 인문 교양, 문화, 예술 공연 등 평생학습 강좌가 동네 인근 상가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방법이다.

연중 3기에 걸쳐 1기당 10주(주 1회 2시간) 수업으로 진행하며, 수강생이 장소 섭외하여 강좌 신청을 하면 시에서 강사를 배정해 파견한다.

강좌에 참여하는 강사와 매니저는 수당을 지급하며 학습장을 제공한 상가는 공간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강사 3만원/시간당, 매니저 1만 5,000원/회당, 장소사용료 2만원/시간당)

### ▲그간 추진사항

2018년 10월부터 4년이 지난 2021년 10월까지 총 3,213개 강좌(수강생 1만 7,707명)가 2,844개소에서 운영됐다.

그간 참여한 수강생 1만 7,707명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무료로 학습을 제공받았고, 참여 강사 2,653명(3만원/시간당)과 매니저 439명(1만 5,000원/회당)은 일지라가 제공됐으며, 학습장을 제공한 지역 상가 2,844개소(4만원/회당)는 공간 사용료가 지원됐다.

1차년도인 2018년도는 395개 강좌(음악, 미술, 인문, 공예 등)가 운영되어 수강생 2,517명이 참여했고, 강사 255명(1인당 60만원)과 매니저 23명 (1인당 평균 75만원)의 일지라가 제공됐으며, 학습장을 제공한 상가 276개소는 상가당 40만원의 공간 사용료가 지원됐다.

2차년도인 2019년도는 총 3기에 걸쳐 1,741개 강좌(음악, 미술, 인문 등 취미와 접목된 다양한 강좌 확대)가 운영돼 시민 9,325명이 참여했으며, 강사 1,430명(1인당 60만원), 매니저 211명(1인당 평균 75만원)의 소득이 발생하고, 학습장을 제공한 지역 상가 1,549개소는 상가당 공간사용료 40만원이 지원됐다.

특히, 2019년에는 더 많은 연령층에게 폭넓은 학습과 혜택을 제공 받도록 하기위해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배달강좌'라는 협업을 내걸고 운영한 결과 참여하는 상가의 홍보 효과까지 거두고 있어 참여 상가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5인 이상 소그룹 형태의 동아리 형태로 운영

### 2018년 10월부터 추진 무료 배움·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일석삼조'

한 결과, 공동체 의식 함양과 함께 평생학습의 시작지대였던 직장인들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3차년도인 2020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제1기 495개 강좌로 수강생 2,855명, 강사 392명, 매니저 92명, 학습장 제공 상가 437개소로 축소 운영하였으나 학습자의 편의 제공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OFF-LINE(대면) 접수 방식에서 ON-LINE과 OFF-LINE(대면) 접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정보망 프로그램을 개선했다.

4차년도인 2021년도는 총 3기에 걸쳐 918개 강좌가 운영해 시민 4,850명이 참여했으며, 강사 891명(1인당 60만원), 매니저 167명(1인당 평균 75만원)의 소득이 발생하고, 학습장을 제공한 지역 상가 918개소는 상가당 공간사용료 40만원이 지원됐으며, 배움으로만 그치지 않고, 거리 공연으로 성과 공유회장을 마련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3기 강좌는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 ▲자금효과

사업을 시작한지 4년이 되는 지금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를 통해 우리 주변의 상업 공간을 학습 공간으로 탈바꿈해 받았없는 교육 현장으로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시켰다.

많은 시민들이 1인 1취미를 통해 활력을 되찾고 다양한 강좌들로 시민들의 문화 향유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됐으며, 강사에게 더 많은 일지라의 기회 제공과 평생학습 매니저는 창조적 일자리 창출, 침체된 상권에 사립들이 삼삼오오 모여 골목 공동체를 회복했다.

골목상권에서의 학습 일상화로 교육 문화가 공존하는 상권으로의 상생하는 모델 창출과 더불어 군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다방면의 파급효과로 군산시는 지속 성장하는 자립형 평생학습도시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 ▲향후 활성화 방안

군산 동네문화카페는 배움과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소득 증대를 가져오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거두는 군산시 평생교육의 새로운 학습 특히 브랜드이며 한계를 뛰어넘는 평생학습의 변화이다.

시민의 배움에 기초한 수강생의 참여율 제고 강사의 일자리 향상 소상공인의 학습장 제공 증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우수한 강좌들을 선정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학습자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강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 생활 문화가 공존하는 소통의 학습장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주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